

修禪社(수선사)의 禪門拈頌集(선문염송집)편찬과 宏智錄(굉지록)

Compilation of Seonmunyeonsongjip(禪門拈頌集) by Suseonsa(修禪社) and Record of Hongzhi(宏智錄)

저자 (Authors)	조명제 Myung Je Cho
출처 (Source)	불교학보 63 , 2012.12, 223-252 (30 pages) BUL GYO HAK BO 63 , 2012.12, 223-252 (30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640
APA Style	조명제 (2012). 修禪社(수선사)의 禪門拈頌集(선문염송집)편찬과 宏智錄(굉지록). 불교학보, 63, 223-25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8 10:5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宏智錄

조명제*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굉지록』이 『선문염송집』 편찬에 미친 영향 |
| II. 宏智正覺의 생애와 『굉지록』의 구성 | V. 맺음말 |
| III. 『선문염송집』에 인용된 굉지의 착어 | |
-

< 한글요약 >

굉지정각은 송대 조동종을 대표하는 선승이며, 그의 선은 默照禪으로 불린다. 흔히 목조선으로 대표되는 조동종은 간화선을 표방하는 임제종과 남송대 선문의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념과는 달리 『굉지록』에는 수많은 고적을 공안으로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착어가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다. 『굉지록』에 수록된 착어가 『염송집』의 저본으로서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굉지의 착어는 『염송집』에 본칙 286칙에 두루 인용되었는데, 이러한 인용 빈도는 대혜종고와 쌍벽을 이루며 설두중현, 원오극근 등과 함께 최대의 인용 빈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곧 수선사에서 송대의 조동종을 대표하는 인물인 굉지의 착어를 최대한 수록하고자 한 편찬 방침과 관련된다. 또한 『염송집』에서 굉지가 착어를 붙인 본칙이 많은 조사는 대개 청원계에 해당하고, 특히 조동종 계열의 조사가 중시되었다.

* 신라대 사학과 교수.

둘째, 평지의 착어는 『평지록』 6권 가운데 권1, 3, 4에 수록된 상당과 소참에서 많이 인용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권2에 수록된 『평지송고』와 『평지염고』가 대부분 수록되었다. 『평지송고』는 기본적으로 『설두송고』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지만, 설두와 다른 선의 경지를 드러내고자 한 문헌이었다.

따라서 『염송집』은 조동종을 대표하는 공안 비평으로서 평지의 착어를 최대한 수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면은 『투자송고』와 『단하송고』가 『염송집』에 대부분 수록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곧 『염송집』에는 투자, 단하, 평지로 이어지는 북송말, 남송초의 조동종을 대표하는 송고가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셋째, 『염송집』은 조동종의 대표적인 공안 비평을 집성하는 데에 그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적으로 『염송집』에 4가 평창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서 잘 드러난다. 가령 『벽암록』을 통해 원오는 착어와 평창을 통해 신랄한 비평을 하였고, 무사선(無事禪)에 빠진 송대 선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곧 『벽암록』은 북송의 문자선을 집대성하면서, 그것을 간화선으로 전환하는 단초를 연 문헌이었다.

그런데 『염송집』에는 『벽암록』에서 제시된 원오의 평창이 인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염송집』이 북송 이후의 문자선을 정리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문헌이라는 성격과 관련된다. 따라서 평지로 대표되는 조동종 선승들의 착어를 수록하면서도 『중용록』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염송집』의 문헌적 성격은 『염송집』이 증보, 재간될 무렵인 1246년에 송대 운문종, 임제종, 조동종을 대표하는 설두, 원오, 평지의 착어만을 집성한 『삼가염송집』이 간행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나아가 이러한 공안집의 편찬이 결국 문자선의 집성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종래 수선사 단계의 간화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문제는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평지정각(宏智正覺), 평지록(宏智錄), 수선사(修禪社), 공안선(公案禪)

I. 머리말

송대의 선은 수행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公案禪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선문에 공유되는 고전으로서 수집, 선택된 선인의 문답 기록인 공안을 과제로서 탐구하는 것이 수행의 중심이 되었다. 그 방법은 크게 文字禪과 看話禪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자선은 공안의 비평과 재해석을 통해 禪理를 천양하자고 하는 것으로 代語, 別語, 頌古, 拈古, 評唱 등이 그 주된 수단이다. 문자선은 북송초의 汾陽善昭(947~1024)의 『汾陽頌古』에서 비롯되며, 그 정점에 이른 것이 雪竇重顯(980~1052)의 『雪竇頌古』와 그것에 대한 圓悟克勤(1063~1135)의 강의록인 『碧巖錄』이었다.

한편, 간화선은 특정한 공안에 전의식을 집중시켜, 그 한계점에서 마음의 激發, 大破를 통해 극적인 깨달음의 체험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모든 구도자에게 실천 가능하고, 또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는 開悟의 방법화는 원오의 제자인 大慧宗杲(1089~1163)가 완성하였다. 아울러 간화선의 완성은 여러 가지 배경과 경위가 있지만, 『벽암록』의 평창 가운데 간화선으로 결실되는 싹이 드러났다는 사실도 주목된다.¹⁾

이러한 송대 선의 흐름은 12세기에 이르러 고려 불교계에 점차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3세기에 수선사가 등장하면서 송대 선이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이 시기에 간행되었던 송대 禪籍이나 고려 선종계에서 저술되거나 편찬된 선적을 통해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선문염송집』(이하 『염송집』으로 줄임)은 수선사가 공안선을 수용하면서 독자적으로 편찬한 공안집이며, 고려 선적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문헌이다. 왜냐하면 『염송집』은 고려 선종계에서 송대 선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폭넓게 보여주는 자료이며, 아울러 공안선이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염송집』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나마 제시된 성과는 전체의 체재나 구성에 대한 문제를 목차를 통해 접근한다든지, 편찬자 핵심과 관련된 문제에 그치고 있다.²⁾ 더욱이 저본 분석이 전체 30권 가운데

1)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小川隆, 『續・語録のことは『碧巖錄』と宋代の禪』(교토: (財)禪文化研究所, 2010); 『語録の思想史』(도쿄: 岩波書店, 2011).

2) 이동준, 「禪門拈頌의 기초적 저본에 대하여 - 제1권을 중심으로 -」, 『진산한기두박사화갑기념 한국종교사상의 재조명』(익산: 원광대 출판국, 1993); 한기두, 「선문염송의 편찬에 따르는 慧心禪의 意旨」, 『보조사상』 7(서울: 보조사상연구원, 1993); 김호동, 「선문염송과 진각국사 혜

데 권1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저본의 비교 대상을 설정한 이유나 사상사적 성격에 대한 접근도 거의 없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적으로 송대 선적과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하지 않거나 저본에 대한 문헌학적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

국내 학계의 연구 상황과 달리 일본의 시이나 코유 선생은 송원판 선적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염송집』의 자료 가치에 대한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³⁾ 그의 글은 송대 선종사의 흐름과 문헌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려 선적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염송집』의 가장 기본적인 저본으로서 『宗門統要集』(이하 『통요』로 줄임)과 『禪宗頌古聯珠集』(이하 『송고연주』로 줄임)에 주목하여, 이들 문헌이 『염송집』의 편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밝힌 바가 있다.⁴⁾

필자는 이러한 성과에 이어 송대의 운문종, 조동종, 임제종을 대표하는 인물인 설두중현, 굉지정각, 원오극근, 대혜종고 등의 착어가 『염송집』의 편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그 성과를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⁵⁾ 이 글은 그러한 성과의 일부로서 송대 조동종을 대표하는 宏智正覺(1091~1157)의 어록인 『굉지록』이 『염송집』의 편찬에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그 사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宏智正覺의 생애와 『굉지록』의 구성

曹洞宗은 洞山良价(807~869)와 그 문하의 曹山本寂(840~901)의 계보를 잇는 문파로서 형성되었지만, 선종계에서 그다지 중풍을 떨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송 중기에 投子義青(1032~1083)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중세가 확대되었다. 그는 본래 임제

심, 『민족문화논총』 18·19합집(경산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9) : 이영석, 「선문염송의 편찬에 관한 연구」, 『정토학연구』 5(서울 : 정토학회, 2002) : 진성규, 「선문염송의 편찬과 그 의의」, 『백산학보』 66(서울 : 백산학회, 2003) : 정천구, 「『선문염송』의 편찬에 대한 사상사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32권 3호(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이점숙, 「禪門拈頌에 관한 연구」(서울 :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0).

3) 推名宏雄, 「『禪門拈頌集』의 資料價値」, 『印度學佛敎學研究』 第51卷 第1號(도쿄 : 印度學佛敎學會, 2002).

4)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宗門統要集』」, 『보조사상』 34(서울 : 보조사상연구원, 2010.08) ;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禪宗頌古聯珠集』」, 『불교학보』 62(서울 : 불교문화연구원, 2012.08).

5) 조명제,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雪寶 7部集」, 『한국사상사학』 42(서울 : 한국사상사학회, 2012.12).

중의 浮山法遠(991~1067)의 법맥을 이었지만, 조동종의 大陽警玄(943~1027)에게 조동종의 법계를 代付받았다.

투자는 안휘성 舒州의 白雲山 海會禪院과 投子山 勝因禪院 등에서 활약하였고, 그의 문하에 芙蓉道楷(1043~1118)와 大洪報恩(1058~1111)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紹聖 원년(1094)에 대홍보은이 호북성 隨州 大洪山에 주석하면서 이후 이곳은 조동종이 발전하는 기초가 쌓이게 되었다.⁶⁾ 이어 대홍산의 제2대 주지가 된 부용도혜는 보은이 쌓은 기반을 토대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북송대 조동종 교단이 크게 발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부용의 법맥을 계승한 丹霞子淳(1064~1117)은 대홍산의 제4대 주지이며, 하남성 南陽縣의 丹霞山 棲霞寺에 주석하면서 크게 부흥시켰다. 그의 종풍은 계승을 많이 남겨 『송고』로 조동종의 입장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⁷⁾ 자순에 이르러 대홍산은 계율과 가람이 부흥되고 규범이 정비되어 조동종이 이곳에서 성립, 전승되었다. 이러한 기반은 그의 문하의 선승들의 활약에 따라 크게 발전되었다.⁸⁾ 부용의 三賢孫으로 불린 慧照慶預(1078~1140), 眞歇清了(1088~1151), 磻지정각은 당시 조동종의 대표적인 선승들이었다. 이들의 활약에 의해 조동종은 호북성에서 절강, 복건으로 발전하였고, 당시 임제종의 간화선에 대응하는 국면으로 나아갔다.⁹⁾ 특히 磻지정각은 默照禪이라 불리는 독자적인 종풍을 선양하고, 조동종을 집대성하였다.

磻지는 입적 후의 紹興 28년(1158)에 받은 시호이다. 그는 법명이 정각이며, 천둥산에 오래 주석하였기 때문에 천둥이라 불리기도 한다.¹⁰⁾ 그는 산서성 隰縣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 宗道는 黃龍慧南의 제자인 佛陀德遜의 문하에서 수행하여 李行者라고 불릴 정도로 불교와 인연이 깊었다. 磻지는 7세에 불전을 읽고, 11세에 향리의 淨明寺에서 출가하였다. 이어 그는 14세에 구족계를 받고, 18세에 少林寺에서 여름을 지내고, 가을에 龍門 香山寺의 枯木法成(1071~1128)에게 나아갔다. 고목은

6) 石井修道, 「宋代曹洞宗禪籍考 -投子義青の二種の語録-,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35(도쿄: 駒澤大學 佛教學部, 1977), pp.168~204.

7) 石井修道, 「丹霞子淳の宗風」, 『宗教研究』 50-3(도쿄, 日本宗教學會, 1976).

8) 石井修道, 『宋代禪宗史の研究』(도쿄: 大東出版社, 1987), pp.234~248.

9) 石井修道, 위의 책, pp.254~275.

10) 磻지정각의 전기는 1차 자료로서 1158년에 周葵가 찬한 「宏智禪師妙光塔銘」, 趙令衿이 찬한 「勅謚宏智禪師後錄序」, 1166년에 王伯庠이 찬한 「勅謚宏智禪師行業記」 등이 있다. 그 외에 「宗門聯燈會要」를 비롯한 각종 전등사서가 참고가 되는데, 여기서는 石井修道, 위의 책, pp.295~326을 주로 참조하였다.

부용도해의 법맥을 계승한 인물이다.

굉지는 고목의 문하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고목의 법형인 단하자순이 鄧州의 단하산 서하사에서 교화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나아갔다. 그는 자순의 아래에서 수년간 수행하여 政和 3년(1113)에 23세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다음 해에 자순은 병으로 인해 唐州 大乘山의 西庵으로 물러났는데, 이 무렵 자순이 『송고』를 찬술하였다. 굉지는 그 후에 자순이 수주 대흥산 保壽禪院의 4세 주지가 되면서 따라 가고, 靖화 7년(1117)에 입적할 때까지 스승을 모셨다. 이 무렵 조동종은 대흥산에서 중세를 확대해가고 있었다.¹¹⁾

이후 굉지는 32세에 圓通寺, 長蘆寺를 거쳐 泗州의 普照禪寺에서 개당하였다. 이후 정강의 변으로 북송이 몰락하는 국가적인 격변이 일어났고, 그는 靖康 2년(1127)에 34세로 舒州의 太平興國禪院으로 들어갔다. 이어 그는 江州의 能仁禪寺에 잠깐 머물다가, 당시 66세의 원오극근이 주지하고 있던 雲居眞如禪院에 머물렀다. 이때에 그는 원오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 長蘆崇福禪院에 들어갔고, 이어 眞州 天寧寺에서 개당하였다.

이 무렵 금의 공격이 계속되었으므로 그는 난을 피해 眞歇이 있던 보타낙가산으로 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建炎 3년(1129)에 天童寺에서 上堂하였고, 입적할 때까지 28년간 머물렀다. 그가 천동사에서 주지를 하면서 1,200여 선승이 모일 만큼 중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상에서 송대 조동종의 흐름과 굉지정각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어 굉지의 어록인 『굉지록』의 판본과 구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동종은 중국에서도 이른 시기에 사라졌고, 일본에서 조동종이 에도 시대 이후 최대 종파로 부상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현재, 『굉지록』은 일본 오이타현 泉福寺에 소장된 6권본 宋版이 현존 最古의 판본이며, 일본 조동종의 개조인 도겐(道元)이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다.¹²⁾ 천복사본은 본래 紹興 27년(1157)에 智宣, 悟遷 등에 의해 간행된 것이었다. 이외에도 4권본 송판

11) 石井修道, 「攻媿集にみられる禪宗資料 -投子義青の法系を中心として-, 『東方宗教』 39(도쿄, 1972.04); 「芙蓉道楷と丹霞子淳」, 『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 3(도쿄: 駒澤大學 佛教學部, 1972.12); 「慧照慶禎と眞歇清了と宏智正覺と」,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36(도쿄: 駒澤大學 佛教學部, 1978).

12) 『굉지록』의 서지 사항이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문제는 다음의 글을 주로 참조하였다. 石井修道, 「宏智廣錄考」,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30(도쿄, 駒澤大學 佛教學部, 1972); 「宋版『宏智錄』六冊について」, 『禪籍善本古注集成 宏智錄』 上(도쿄: 名著普及會, 1984)

과 원관이 알려져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유포된 것은 寶永 5년(1706)에 간행된 9권본 『宏智禪師廣錄』이다. 속장경과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된 굉지의 어록은 보영본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보영본은 천복사본을 토대로 하면서도 9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도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천복사본을 이용하였다.

한편, 『굉지록』은 어록과 광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록과 광록이 같은 계통의 것이다. 천복사본 6책을 分冊, 정리한 것이 보영본 9권, 곧 『굉지선사광록』이었다. 또 천복사본은 6책을 한꺼번에 모아 개관한 것이 아니고, 어록도 천동사에 주석하였던 30년간의 1/3만 현존하므로 처음부터 광록의 체계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¹³⁾

천복사본의 구성은 어록이 형성된 시기에 따라 편집되었으며, 차례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권1은 성립 시기의 순서대로 『泗州大聖普照禪寺語錄』, 『舒州太平興國禪院語錄』, 『江州廬山圓通崇勝禪院語錄』, 『江州能仁禪寺語錄』, 『眞州長蘆崇福禪院語錄』, 小參, 偈頌, 僧堂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권2에 『泗州普照覺和尚頌古』(이하 『宏智頌古』로 표기함), 『眞州長蘆覺和尚拈古』(이하 『宏智拈古』로 표기함), 권3에 『明州天童山覺和尚語錄』, 권4에 『明州天童山覺和尚小參』, 『天童覺和尚法語』, 권5에 『天童覺和尚眞贊』, 권6에 『明州天童山覺和尚眞贊偈頌』, 下火, 偈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위의 전체 구성을 보면 『굉지록』이 통일된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각 시자에 의한 편집이 소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굉지의 선은 默照禪으로 불리며, 간화선을 완성한 대혜종고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면서 남송 이후 송대 선문의 양대 문파로서 대립적인 선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통념과는 달리 『굉지록』에는 수많은 고척을 공안으로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착어가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다.

더욱이 굉지는 대혜종고와 대단히 친밀한 사이였다. 예를 들어 소흥 26년(1156)에 대혜가 報恩光孝寺에서 개당하였을 때에 굉지가 白槌師를 하였다.¹⁴⁾ 또한 그에 대한 답례로 대혜가 天童寺를 방문하였고, 이어 굉지의 추천으로 대혜가 阿育王寺 주지를 맡았다. 아울러 굉지는 입적하기 전에 대혜에게 후사를 부탁할 정도였다.¹⁵⁾

13) 石井修道, 앞의 논문(1972), 110~111쪽. 아울러 천복사본의 서지 사항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石井修道 선생의 글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14) 『大慧普覺禪師住育王廣利禪寺語錄』 권5, 「師紹興二十六年十一月二十三日」(大正新脩大藏經 47권, p.829).

15) 石井修道, 앞의 책, p.326 참조.

Ⅲ. 『선문염송집』에 인용된 꺽지의 착어

『염송집』 30권은 본래 혜심(1178~1234)이 중심이 되어 1226년에 고착 1125칙과 그에 대한 착어를 모아 편찬한 것이다. 이 초간본은 몽골군의 침략으로 인해 손실되었고, 현재 전해지는 판본은 1240년대에 수선사 3세인 小融夢如가 원본에 새롭게 347칙을 증보하여 대장도감 남해분사에서 재조대장경의 보유판으로 간행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먼저 『염송집』에 꺽지의 착어가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를 『꺽지록』과 비교, 분석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염송집』에 인용된 꺽지의 착어 일람¹⁶⁾

번호	『염송집』 칙수	천동 착어	출전	비고
1	6(世尊)	頌古	권2 1(82쪽)	『송고』 (1) 『송고연주』 수록
2	9(世尊)	上堂 拈古	권1 47(19쪽)	
3	16 (世尊)	上堂 頌古	권3 140(190~191쪽)	
4	27 (世尊)	頌古	권2 4(83쪽)	『송고』 (4)
5	32 (世尊)	拈古	권2 1(120쪽)	『염고』 (1)
6	33 (世尊)	拈古	?	
7	38 (華嚴經)	頌古	권2 67(107쪽)	『송고』 (67)
8	47 (圓覺經)	頌古	권2 45(99쪽)	『송고』 (45)
9	49 (楞嚴經)	頌古	권2 88(115쪽)	『송고』 (88)
10	52 (楞嚴經)	上堂 拈古	권1 76(27쪽)	
11	55 (金剛經)	上堂 拈古 拈古	권3 270(226쪽) 권2 16(125쪽)	『염고』 (16)
12	58 (金剛經)	頌古	권2 58(104쪽)	『송고』 (58)
13	62 (諸佛要集經)	頌古	권2 48(100쪽)	『송고』 (48)
14	81 (迦葉)	頌古 頌古 頌古	권3 288(231쪽) 권3 288(231쪽) 권3 200(207쪽)	『송고연주』 수록

16) 『염송집』은 고려대장경 제조본의 영인본(『고려대장경』 46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을 이용하였으며, 『꺽지록』은 천복사본을 이용하였다. <표>의 칙수는 필자가 본칙의 수록 순서대로 임의로 붙인 것이다. 출전의 숫자는 이시이 슈도 선생이 천복사본 『꺽지록』의 권별 순서를 붙인 번호를 그대로 따랐다. 비교의 「송고」와 「염고」의 번호는 각각 「꺽지송고」, 「꺽지염고」의 칙수이다.

번호	『염송집』 칙수	천동 착어	출전	비고
15	97 (般若多羅)	頌古	권2 3(82~83쪽)	『송고』 (3) 『송고연주』 수록
16	98 (達磨)	頌古	권2 2(82쪽)	『송고』 (2)
17	101 (達磨)	上堂 拈古	?	
18	105 (二祖)	小參 拈古	권1 168(59쪽)	
19	119 (南嶽懷讓)	小參 拈古	권1 178(67쪽)	
20	120 (南嶽懷讓)	上堂 拈古 上堂 拈古	권3 153(194쪽) 권3 242(218쪽)	
21	129 (慧忠國師)	拈古	권2 50(134쪽)	『염고』 (50)
22	130 (慧忠國師)	拈古	권2 33(129쪽)	『염고』 (33)
23	131 (慧忠國師)	頌古	권2 42(98쪽)	『송고』 (42)
24	133 (慧忠國師)	上堂 拈古	권3 261(224쪽)	
25	144 (慧忠國師)	上堂	권1 66(24쪽)	
26	146 (慧忠國師)	頌古	권2 85(113쪽)	『송고』 (85)
27	147 (淸源行思)	頌古	권3 284(229~230쪽)	
28	148 (淸源行思)	頌古	권2 5(83쪽)	『송고』 (5) 『송고연주』 수록
29	157 (馬祖)	上堂 頌古	권3 277(228쪽)	『송고연주』 수록
30	161 (馬祖)	頌古 示衆 頌古	권3 14(156쪽) 권3 222(213쪽)	『송고연주』 수록
31	164 (馬祖)	頌古	권2 6(83~84쪽)	『송고』 (6)
32	165 (馬祖)	拈古	권2 17(125쪽)	『염고』 (17)
33	169 (馬祖)	頌古	권2 36(95쪽)	『송고』 (36) 『송고연주』 수록
34	181 (百丈)	小參	권4 4(243쪽)	
35	184 (百丈)	頌古	권2 8(84쪽)	『송고』 (8)
36	185 (百丈)	頌古 頌古	권1 85(29쪽) 권3 269(226쪽)	
37	188 (魯祖寶雲)	頌古 上堂 拈古 上堂 拈古	권2 23(90쪽) 권1 144(50~51쪽) 권3 58(169쪽)	『송고』 (23)
38	189 (魯祖寶雲)	上堂 拈古 上堂 拈古	권1 83(29쪽) 권1 156(54쪽)	
39	194 (麻谷寶徹)	頌古	권2 16(88쪽)	『송고』 (16)
40	199 (鹽官齊安)	頌古	권2 25(91쪽)	『송고』 (25) 『송고연주』 수록
41	205 (南泉)	拈古	권2 76(141쪽)	『염고』 (76)

번호	『염송집』 칙수	천동 착어	출전	비고
42	206 (南泉)	拈古	권2 61(137쪽)	『염고』 (61)
43	207 (南泉)	頌古	권2 9(85쪽)	『송고』 (9)
44	208 (南泉)	拈古	권2 4(121쪽)	『염고』 (4)
45	209 (南泉)	頌古	권2 91(116쪽)	『송고』 (91)
46	211 (南泉)	頌古	권2 93(117쪽)	『송고』 (93) 『송고연주』 수록
47	212 (南泉)	拈古	권2 51(134쪽)	『염고』 (51)
48	233 (南泉)	上堂	권3 201(207쪽)	
49	235 (南泉)	頌古	권2 69(107쪽)	『송고』 (69)
50	237 (南泉)	拈古	권2 99(148쪽)	『염고』 (99)
51	239 (南泉)	上堂	권3 196(206쪽)	권4 35(295쪽)에도 본칙과 曹山 문답 인용
52	240 (南泉)	上堂	권3 138(190쪽)	『송고연주』 수록
53	266 (大梅法常)	小參	권1 175(65~66쪽)	
54	273 (水潦和尚)	拈古	권2 94(147쪽)	『염고』 (94)
55	276 (百丈惟政)	上堂	권1 157(54쪽)	
56	278 (石鞏慧藏)	拈古	권2 43(132쪽)	『염고』 (43)
57	279 (石鞏慧藏)	頌古	권2 72(109쪽)	『송고』 (72)
58	292 (南園曇藏)	拈古	권2 69(139쪽)	『염고』 (69)
59	295 (龍山和尚)	上堂	권3 7(154쪽)	
60	296 (龍山和尚)	拈古 上堂	권2 26(127쪽) 권3 216(211~212쪽)	『염고』 (26)
61	301 (京兆興平)	頌古	권3 129(187쪽)	
62	312 (龐居士)	上堂	권3 165(198쪽)	
63	321 (丹霞天然)	上堂	권3 195(205~206쪽)	
64	326 (藥山)	頌古 頌古	권2 7(84쪽) 권3 257(223쪽)	『송고』 (7) 『송고연주』 수록
65	335 (藥山)	上堂 頌古	권1 54(21쪽)	
66	347 (長髯曠)	頌古	권3 177(201쪽)	『송고연주』 수록
67	357 (滄山靈祐)	頌古	권2 87(115쪽)	『송고』 (87)
68	366 (滄山靈祐)	頌古	권2 37(96쪽)	『송고』 (37)
69	369 (滄山靈祐)	頌古 上堂 拈古	권2 15(87쪽) 권3 263(224쪽)	『송고』 (15) 『송고연주』 수록
70	371 (滄山靈祐)	拈古 小參	권2 28(128쪽) 권4 21(271쪽)	『염고』 (28)

번호	『염송집』 칙수	천동 착어	출전	비고
71	374 (滄山靈祐)	頌古 上堂	권2 60(104쪽) 권3 172(199쪽)	『송고』 (60) 『송고연주』 수록
72	388 (黃蘗希運)	拈古 小參	권2 62(137쪽) 권4 4(243쪽)	『염고』 (62)
73	390 (黃蘗希運)	頌古	권2 53(102쪽)	『송고』 (53)
74	393 (黃蘗希運)	上堂	권3 75(173쪽)	
75	399 (大慈寶中)	拈古	권2 73(140쪽)	『염고』 (73) 『염송집』은 示衆 형식
76	400 (大慈寶中)	小參	권4 31(290쪽)	
77	401 (大慈寶中)	拈古	권2 93(146쪽)	『염고』 (93)
78	402 (大慈寶中)	拈古	권2 83(143쪽)	『염고』 (83)
79	408 (趙州)	上堂 頌古	권3 68(172쪽)	
80	410 (趙州)	小參	권1 177(66~67쪽)	
81	411 (趙州)	頌古 上堂	권1 6(8쪽) 권3 211(210쪽)	
82	412 (趙州)	頌古	권2 10(85쪽)	『송고』 (10)
83	413 (趙州)	拈古 小參	권2 97(147쪽) 권4 11(253~255쪽)	『염고』 (97)
84	415 (趙州)	上堂	권3 83(176쪽)	
85	417 (趙州)	頌古 頌古	권2 18(88~89쪽) 권1 180(68쪽)	『송고』 (18)
86	421 (趙州)	頌古	권2 47(99쪽)	『송고』 (47)
87	428 (趙州)	上堂 示衆 小參	권3 23(159쪽) 권3 251(221쪽) 권4 13(257~258쪽, 258~259쪽)	
88	429 (趙州)	頌古 上堂 頌古 示衆 頌古	권2 39(96쪽) 권3 259(223쪽) 권3 294(232쪽)	『송고』 (39) 『송고연주』 수록
89	430 (趙州)	拈古	권2 24(127쪽)	『염고』 (24)
90	434 (趙州)	小參	권4 23(275쪽)	
91	435 (趙州)	頌古 小參 小參 小參	권2 57(103쪽) 권4 27(283~284쪽) 권4 8(248쪽) 권4 8(249~250쪽)	『송고』 (57) 『송고연주』 수록

번호	『염송집』 칙수	천동 착어	출전	비고
92	439 (趙州)	拈古	권2 81(143쪽)	『염고』 (81)
93	461 (趙州)	上堂	권3 92(177~178쪽)	
94	488 (趙州)	頌古	권2 79(111쪽)	『송고』 (79)
95	491 (長沙景岑)	拈古	권2 66(138쪽)	『염고』 (66)
96	492 (長沙景岑)	上堂 頌古	권3 104(181쪽)	
97	493 (長沙景岑)	上堂	권3 218(212쪽)	
98	501 (子湖)	上堂	권3 214(211쪽)	
99	522 (雲巖曇晟)	拈古	권2 75(141쪽)	『염고』 (75)
100	524 (雲巖曇晟)	頌古	권2 21(90쪽)	『송고』 (21) 『송고연주』 수록
101	528 (道吾宗智)	頌古	권2 83(113쪽)	『송고』 (83)
102	532 (道吾宗智)	頌古 上堂	권2 54(102쪽) 권4 9(250~251쪽)	『송고』 (54) 『송고연주』 수록
103	534 (船子德誠)	上堂 上堂	권1 62(23쪽) 권1 163(56쪽)	
104	552 (金華俱胝)	頌古	권2 84(113쪽)	『송고』 (84)
105	553 (末山尼)	小參 拈古 上堂 頌古	권1 173(64쪽) 권3 169(198쪽)	
106	556 (石霜慶諸)	上堂 頌古	권3 88(177쪽)	
107	557 (石霜慶諸)	拈古 拈古 小參	권2 14(124쪽) 권3 279(229쪽) 권1 171(61~62쪽)	『염고』 (14)
108	558 (石霜慶諸)	拈古	권2 84(144쪽)	『염고』 (84)
109	560 (石霜慶諸)	拈古	권2 31(128쪽)	『염고』 (31)
110	564 (漸源仲興)	上堂 拈古 上堂	권3 10(155쪽) 권3 155(195쪽)	
111	565 (漸源仲興)	上堂	권3 203(208쪽)	
112	566 (漸源仲興)	拈古	권2 20(126쪽)	『염고』 (20)
113	567 (仰山慧寂)	頌古 小參	권2 26(91쪽) 권4 36(295~296쪽)	『송고』 (26) 雲門, 雪竇 착어 인용
114	568 (仰山慧寂)	拈古	권2 63(138쪽)	『염고』 (63)
115	571 (仰山慧寂)	頌古	권2 77(110쪽)	『송고』 (77)
116	572 (仰山慧寂)	頌古 示衆	권2 90(115~116쪽) 권3 281(229쪽)	『송고』 (90) 『송고연주』 수록
117	574 (仰山慧寂)	頌古	권2 32(94쪽)	『송고』 (32)

번호	『염송집』 칙수	천동 착어	출전	비고
118	590 (靈雲志勤)	示衆 頌古 小參	권3 298(233쪽) 권4 1(238쪽)	
119	591 (靈雲志勤)	拈古 小參	권2 42(131쪽) 권4 17(264~265쪽)	『염고』 (42)
120	597 (香巖智閑)	拈古	권2 7(122쪽)	『염고』 (7)
121	601 (香巖智閑)	拈古 上堂 上堂	권2 49(133쪽) 권3 78(174쪽) 권3 193(205쪽)	『염고』 (49)
122	602 (香巖智閑)	上堂	권3 225(214쪽)	『굉지록』은 趙州 문답 만 인용
123	604 (京兆米胡)	頌古	권2 62(105쪽)	『송고』 (62)
124	607 (臨濟)	頌古	권2 86(114쪽)	『송고』 (86) 『송고연주』 수록
125	614 (臨濟)	上堂	권3 290(232쪽)	
126	615 (臨濟)	頌古	권2 95(117쪽)	『송고』 (95) 『송고연주』 수록
127	616 (臨濟)	拈古	권2 25(127쪽)	『염고』 (25)
128	617 (臨濟)	頌古	권2 38(96쪽)	『송고』 (38)
129	635 (臨濟)	頌古	권2 13(87쪽)	『송고』 (13) 『송고연주』 수록
130	636(睦州陳尊宿)	上堂	권1 92(34쪽)	
131	637 (睦州)	上堂 上堂	권3 96(180쪽) 권3 199(207쪽)	『염송집』은 본칙이 睦 州이지만, 『굉지록』에 僧問南泉임을 밝힘.
132	638 (睦州)	拈古	권2 14(124쪽)	『염고』 (15)
133	644 (睦州)	拈古	권2 98(148쪽)	『염고』 (98)
134	646 (睦州)	拈古	권2 3(120쪽)	『염고』 (3)
135	668 (德山)	頌古	권2 55(103쪽)	『송고』 (55) 『송고연주』 수록
136	671 (德山)	頌古 上堂 拈古	권2 14(87쪽) 권3 120(185~186쪽)	『송고』 (14) 『송고연주』 수록
137	681 (洞山良价)	頌古 上堂	권2 49(100쪽) 권1 36(16쪽)	『송고』 (49)
138	683 (洞山良价)	頌古	권3 223(213쪽)	
139	684 (洞山良价)	頌古 上堂	권2 56(103쪽) 권1 72(26쪽)	『송고』 (56)
140	685 (洞山良价)	頌古	?	

번호	『염송집』 칙수	천동 착어	출전	비고
141	686 (洞山良价)	頌古 上堂	권1 171(62쪽) 권3 159(196~197쪽)	
142	687 (洞山良价)	頌古 上堂 上堂 示衆	권2 89(115쪽) 권3 238(216~217쪽) 권1 122(42쪽) 권3 265(225쪽)	『송고』 (89) 『송고연주』 수록
143	688 (洞山良价)	拈古 拈古	? 권2 36(130쪽)	『염고』 (36)
144	689 (洞山良价)	拈古	권2 100(148쪽)	『염고』 (100)
145	690 (洞山良价)	拈古	권2 5(121쪽)	『염고』 (5)
146	691 (洞山良价)	拈古	권2 89(145쪽)	『염고』 (89)
147	696 (洞山良价)	上堂	권1 126(46쪽)	
148	702 (洞山良价)	上堂	권1 117(40쪽)	
149	707 (洞山良价)	頌古 上堂 小參	권2 94(117쪽) 권1 20(12쪽) 권1 176(66쪽)	『송고』 (94)
150	711 (夾山)	拈古 上堂	권2 40(131쪽) 권1 90(31쪽)	『염고』 (40)
151	712 (夾山)	小參	권4 21(270~271쪽)	
152	713 (夾山)	頌古	권2 68(107쪽)	『송고』 (68) 『송고연주』 수록
153	714 (夾山)	拈古	권1 86(30쪽)	
154	715 (夾山)	上堂	권3 42(164쪽)	
155	720 (夾山)	上堂 頌古	권3 64(171쪽)	
156	723 (石梯和尚)	拈古	권2 38(130쪽)	『염고』 (38)
157	725 (投子大同)	示衆 頌古	권3 297(233쪽)	
158	726 (投子大同)	頌古 小參 小參	권2 63(105쪽) 권1 172(62~63쪽) 권4 13(258쪽)	『송고』 (63)
159	732 (投子大同)	上堂	권1 84(29쪽)	
160	746 (清平令遵)	上堂 示衆 頌古	권1 56(21쪽) 권3 230(215쪽)	『송고연주』 수록
161	751 (三聖慧然)	拈古	권2 64(138쪽)	
162	756 (興化存獎)	頌古 頌古	권2 97(118쪽) 권2 97(118~119쪽)	『송고』 (97)에 2송 『송고연주』 모두 수록
163	765 (灌溪志閑)	拈古	권2 67(139쪽)	『염고』 (67)

번호	『염송집』 칙수	천동 착어	출전	비고
164	767 (定上座)	頌古 上堂	권3 255(222쪽) 권1 121(41쪽)	『송고연주』 수록
165	784 (雪峯)	小參	권1 167(58쪽)	
166	785 (雪峯)	拈古	권2 32(129쪽)	『염고』 (32)
167	788 (雪峯)	小參	권4 23(276쪽)	
168	789 (雪峯)	頌古	권2 24(91쪽)	『송고』 (24) 『송고연주』 수록
169	790 (雪峯)	頌古	권2 33(94쪽)	『송고』 (33)
170	795 (雪峯)	上堂	권1 55(21쪽)	
171	797 (雪峯)	拈古	권2 11(123쪽)	『염고』 (11)
172	800 (雪峯)	拈古 上堂 拈古	권2 19(125쪽) 권3 2(152쪽)	『염고』 (19)
173	806 (雪峯)	拈古	권2 91(146쪽)	『염고』 (91)
174	810 (雪峯)	頌古	권2 50(101쪽)	『송고』 (50) 『송고연주』 수록
175	811 (雪峯)	拈古	권2 74(141쪽)	『염고』 (74)
176	812 (雪峯)	拈古	권2 53(135쪽)	『염고』 (53)
177	826 (巖頭全豁)	頌古	권2 22(90쪽)	『송고』 (22)
178	827 (巖頭全豁)	拈古	권2 60(137쪽)	『염고』 (60)
179	831 (巖頭全豁)	上堂	권3 146(193쪽)	
180	836 (巖頭全豁)	頌古	권2 75(109~110쪽)	『송고』 (75)
181	845 (陳操尙書)	拈古	권2 89(145쪽)	『염고』 (89)
182	846 (大隨法眞)	頌古	권2 30(93쪽)	『송고』 (30)
183	856 (雲居道膺)	上堂 頌古	권3 207(209쪽)	
184	857 (雲居道膺)	上堂 頌古 上堂	권3 189(204쪽) 권3 148(193쪽)	
185	858 (雲居道膺)	小參	권4 33(292~293쪽)	
186	859 (雲居道膺)	小參	권4 5(244~245쪽)	
187	877 (曹山本寂)	頌古	권2 73(109쪽)	『송고』 (73)
188	878 (曹山本寂)	拈古 拈古	권2 45(132쪽) 권3 39(164쪽)	『염고』 (45)
189	879 (曹山本寂)	拈古	권2 72(140쪽)	『염고』 (72)
190	880 (曹山本寂)	示衆	권3 247(219~220쪽)	
191	881 (曹山本寂)	上堂 拈古 上堂	권3 126(186~187쪽) 권1 44(18쪽)	
192	882 (曹山本寂)	頌古	권2 52(101~102쪽)	『송고』 (52)
193	891 (曹山本寂)	上堂	권3 232(216쪽)	

번호	『염송집』 칙수	천동 착어	출전	비고
194	894 (龍牙居遁)	頌古	권2 80(112쪽)	『송고』 (80) 『송고연주』 수록
195	902 (龍牙居遁)	拈古	권2 79(142쪽)	『염고』 (79)
196	909 (洞山師虔)	頌古 小參	권2 59(104쪽) 권1 170(60쪽)	『송고』 (59)
197	912 (白水本仁)	拈古 拈古	권2 46(132~133쪽) 권2 88(144~145쪽)	『염고』 (46) 『염고』 (88)
198	915 (欽山文邃)	拈古	권2 80(142쪽)	『염고』 (80)
199	917 (越州乾峯)	拈古	권2 59(136쪽)	『염고』 (59)
200	918 (越州乾峯)	頌古	권2 61(105쪽)	『송고』 (61) 『송고연주』 수록
201	919 (越州乾峯)	拈古	권2 22(126쪽)	『염고』 (22)
202	931 (大光居誨)	上堂	권3 33(161쪽)	
203	932 (九峯道虔)	頌古	권2 96(118쪽)	『송고』 (96) 『송고연주』 수록
204	933 (九峯道虔)	小參	권3 27(160쪽)	
205	934 (九峯道虔)	頌古 上堂	권2 66(106~107쪽) 권1 142(50쪽)	『송고』 (66)
206	939 (石柱和尚)	上堂 拈古	권1 49(19~20쪽)	
207	946 (洛浦元安)	頌古	권2 35(95쪽)	『송고』 (35) 『송고연주』 수록
208	947 (洛浦元安)	上堂	권1 9(9쪽)	
209	958 (洛浦元安)	頌古	권2 41(97~98쪽)	『송고』 (41)
210	962 (韶山寶普)	拈古	권2 34(129쪽)	『염고』 (34)
211	970 (保福從展)	拈古	권2 21(126쪽)	『염고』 (21)
212	981 (玄沙師備)	頌古	권2 81(113쪽)	『송고』 (81)
213	982 (玄沙師備)	拈古	권2 9(123쪽)	『염고』 (9)
214	985 (玄沙師備)	拈古	권2 82(143쪽)	『염고』 (82)
215	986 (玄沙師備)	拈古	권2 87(144쪽)	『염고』 (87)
216	989 (玄沙師備)	拈古	권2 65(138쪽)	『염고』 (65)
217	1001 (玄沙師備)	頌古 拈古	권3 206(208쪽) 권2 77(141쪽)	『염고』 (77)
218	1007 (雲門文偃)	頌古 上堂	권2 99(119쪽) 권3 236(216쪽)	『송고』 (99) 『송고연주』 수록
219	1008 (雲門文偃)	頌古	권2 31(93)	『송고』 (31)
220	1009 (雲門文偃)	拈古	권2 70(140쪽)	『염고』 (70)

번호	『염송집』 칙수	천동 착어	출전	비고
221	1012 (雲門文偃)	頌古	권2 92(116쪽)	『송고』 (92)
222	1014 (雲門文偃)	頌古	권2 82(112쪽)	『송고』 (82)
223	1015 (雲門文偃)	上堂	권3 186(203쪽)	
224	1017 (雲門文偃)	拈古	권2 44(132쪽)	『염고』 (44)
225	1018 (雲門文偃)	頌古 上堂 頌古	권2 19(89쪽) 권3 175(200쪽)	『송고』 (19)
226	1022 (雲門文偃)	頌古 上堂	권2 78(111쪽) 권3 161(197쪽)	『송고』 (78)
227	1025 (雲門文偃)	頌古 小參	권2 11(86쪽) 권4 33(291~292쪽)	『송고』 (11)
228	1037 (雲門文偃)	上堂 頌古 上堂	권3 43(164~165쪽) 권1 160(55쪽)	『송고연주』 수록
229	1040 (雲門文偃)	拈古	권2 58(136쪽)	『염고』 (58)
230	1044 (雲門文偃)	拈古	권2 27(128쪽)	『염고』 (27)
231	1046 (雲門文偃)	上堂 頌古 上堂 頌古	권3 72(173쪽) 권3 144(192쪽)	
232	1058 (雲門文偃)	拈古	권2 47(133쪽)	『염고』 (47)
233	1077 (雲門文偃)	頌古	권2 40(97쪽)	『송고』 (40)
234	1105 (長慶慧稜)	上堂 拈古 上堂	권3 151(194쪽) 권3 226(214쪽)	
235	1106 (長慶慧稜)	拈古	권2 30(128쪽)	『염고』 (30)
236	1109 (長慶慧稜)	上堂 示衆	권3 191(204쪽) 권3 262(264~265쪽)	
237	1114 (長慶慧稜)	拈古	권2 54(135쪽)	『염고』 (54)
238	1119 (鏡清道忞)	上堂 拈古	권3 55(168쪽)	
239	1128 (鏡清道忞)	頌古	권2 71(108쪽)	『송고』 (71)
240	1142 (金峯從志)	拈古	권2 56(135~136쪽)	『염고』 (56)
241	1148 (曹山了悟)	拈古 上堂	권2 57(136쪽) 권1 2(6쪽)	『염고』 (57)
242	1164 (鎮州寶壽)	上堂	권1 124(46쪽)	
243	1175 (同安常察)	小參	권4 25(279쪽)	
244	1183 (護國守澄)	頌古 上堂 小參	권3 219(212쪽) 권1 67(25쪽) 권1 179(68쪽)	
245	1184 (護國守澄)	上堂	권3 205(208쪽)	
246	1185 (護國守澄)	頌古	권2 28(92쪽)	『송고』 (28)
247	1191 (襄州廣德)	拈古	권2 18(125쪽)	『염고』 (18)

번호	『염송집』 칙수	천동 착어	출전	비고
248	1192 (芭蕉慧情)	拈古	권2 48(133쪽)	『염고』 (48)
249	1194 (資福如寶)	上堂	권1 16(11쪽)	
250	1200 (羅山道閑)	頌古	권2 43(98쪽)	『송고』 (43) 본칙 石霜 문답 빠짐
251	1207 (羅漢桂琛)	頌古 頌古 上堂	권2 12(86쪽) ? 권3 198(206~207쪽)	『송고』 (12) 『송고연주』 수록 『송고연주』 수록
252	1212 (淨衆歸信)	拈古	권2 13(124쪽)	『염고』 (13)
253	1219 (巴陵顯鑑)	上堂	권1 148(52쪽)	
254	1220 (巴陵顯鑑)	拈古	권2 35(129쪽)	『염고』 (35)
255	1224 (香林澄遠)	上堂 頌古 頌古	권3 285(230쪽) 권3 252(221쪽)	『송고연주』 수록
256	1228 (德山緣密)	頌古 小參	권2 46(99쪽) 권4 29(286~288쪽)	『송고』 (46) 小參 전체 인용
257	1234 (深明二上座)	上堂	권3 18(157쪽)	
258	1247 (風穴)	頌古	권2 29(93쪽)	『송고』 (29)
259	1248 (風穴)	拈古 小參	권2 8(123쪽) 권4 13(256~257쪽)	『염고』 (8)
260	1249 (風穴)	頌古 上堂	권2 34(95쪽) 권3 157(195~196쪽)	『송고』 (34) 『송고연주』 수록
261	1260 (風穴)	小參	권1 181(70~71쪽)	
262	1263 (芭蕉繼徹)	拈古	권2 92(146쪽)	『염고』 (92)
263	1281 (智門光祚)	頌古 拈古 上堂	권1 158(54~55쪽) 권2 12(123~124쪽) ?	권3 271(226쪽) 『염고』 (12)
264	1283 (智門光祚)	上堂 頌古	권3 135(189~190쪽)	
265	1285 (蓮華峯祥庵主)	拈古	권2 10(123쪽)	『염고』 (10)
266	1287 (法眼文益)	頌古	권2 20(89쪽)	『송고』 (20)
267	1293 (法眼文益)	頌古	권2 17(88쪽)	『송고』 (17) 『송고연주』 수록
268	1294 (法眼文益)	頌古 上堂 拈古	권2 27(92쪽) 권3 5(153쪽)	『송고』 (27)
269	1296 (法眼文益)	頌古	권2 64(106쪽)	『송고』 (64)
270	1297 (法眼文益)	拈古	권2 39(130~131쪽)	『염고』 (39)

번호	『염송집』 칙수	천동 착어	출전	비고
271	1298 (法眼文益)	頌古	권2 74(109쪽)	『송고』 (74)
272	1299 (法眼文益)	上堂	권1 18(12쪽)	
273	1302 (法眼文益)	頌古	권2 51(101쪽)	『송고』 (51)
274	1306 (修山主)	拈古	권2 37(130쪽)	『염고』 (37)
275	1314 (清溪洪進)	頌古	권2 70(108쪽)	『송고』 (70)
276	1318 (大陽警玄)	云	?	
277	1319 (大陽警玄)	上堂	권3 101(180~181쪽)	
278	1320 (寶應省念)	頌古	권2 65(106쪽)	『송고』 (65) 『송고연주』 수록
		頌古	권3 48(167쪽)	
279	1323 (首山省念)	頌古	권2 76(110쪽)	『송고』 (76)
280	1325 (首山省念)	上堂	권3 235(216쪽)	정확한 인용 증거
281	1359 (清涼法燈)	拈古	권2 6(122쪽)	『염고』 (6)
282	1371 (興陽剖和尚)	頌古	권2 44(98쪽)	『송고』 (44)
283	1379 (瑯琊慧覺)	頌古	권2 100(119쪽)	『송고』 (100) 『송고연주』 수록
284	1427 (金陵寶誌)	拈古	권2 78(142쪽)	『염고』 (78)
285	1449 (布袋和尚)	拈古	권2 96(147쪽)	『염고』 (96)
286	1457 (古德)	頌古	권1 137(48쪽)	

IV. 『굉지록』이 『선문염송집』 편찬에 미친 영향

위의 <표>를 통해 주목되는 사실과 사상적인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굉지의 착어는 『염송집』의 본칙 286칙에 두루 인용되었다. 이러한 인용 빈도는 대해 종고와 쌍벽을 이루며, 굉지가 설두중현, 원오극근 등과 함께 『염송집』에 착어가 많은 대표적인 선승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곧 수선사에서 송대의 조동종을 대표하는 인물인 굉지의 착어를 최대한 수록하고자 한 편찬 방침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염송집』에 굉지가 착어를 붙인 본칙이 많은 조사를 보면 趙州, 雲門文偃 16회, 洞山良价 13회, 雪峯義存, 南泉普願 12회, 法眼文益 8회, 曹山本寂 7회, 臨濟, 夾山, 玄沙師備, 世尊, 慧忠國師 6회, 馬祖, 滌山靈祐, 仰山慧寂, 睦州陳尊宿 5회, 石霜慶

諸, 大慈寰中, 巖頭全豁, 雲居道膺, 長慶慧稜, 風穴延沼 4회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운문문언, 동산양개, 설봉의존, 법안문익, 조산본적, 석상경제, 운거도응 등이 청원계에 해당하고, 특히 동산양개, 조산본적, 석상경제, 운거도응 등은 조동종 계열의 조사이다. 이러한 경향은 평지가 조동종 조사의 고척 공안을 중시하였던 것이 『염송집』에서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지의 착어는 『평지록』 6권 가운데 1~4권에 수록된 것이 『염송집』에 주로 많이 인용되었다. 아울러 권2에 수록된 송고, 염고뿐만이 아니라 권1, 3, 4에 수록된 상당과 소참을 통해서도 착어를 많이 인용하였다. 한편, 하나의 小參을 고척 공안에 맞게 둘로 나누어 인용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수선사에서 『염송집』을 편찬하면서 송대 선승들의 착어를 최대한 수록하고자 한 편집 방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평지의 착어 가운데 『평지록』 권2에 수록된 『평지송고』와 『평지염고』는 『염송집』에 대부분 그대로 수록되었다. 『평지염고』는 長蘆寺 시기에 편찬되었는데, 2, 23, 29, 41, 55, 68, 71, 85, 86, 95칙 등 10칙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용하였다. 더욱이 『평지송고』는 100칙을 전부 인용하였다. 따라서 『평지송고』와 『평지염고』는 평지의 착어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염송집』의 기본적인 수록 대상이었던 사실이 드러난다.

『평지송고』는 『평지록』 권2에 『泗州普照覺和尚頌古』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평지가 泗州 普照寺에서 주지를 하던 무렵, 곧 宣和 6년(1124)에서 靖康 2년(1127) 사이로 추정된다. 『평지송고』는 기본적으로 『雪竇頌古』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¹⁷⁾ 『평지송고』에는 『설두송고』가 1차 자료로 보이는 고척이 많다. 『설두송고』와 같은 고척이 29칙이며, 본칙의 표현도 완전히 같은 것이 25칙이나 될 정도이다.¹⁸⁾ 또한 『평지록』의 상당이나 소참에서 설두의 염고를 인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드러난다.

이와 같이 평지는 설두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지만, 운문종의 설두와 다른 선의 경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설두송고』의 본칙이 운문종의 조사가 중심인 것에 비해 『평지송고』는 조동종 계열의 조사들의 고화가 많다. 그 출전은 『설두송고』에 기초를 두면서도, 독자적인 어구로 고친 예도 적지 않다. 그는 설두를 존경하면서도 설두 당

17) 建炎 3년(1129)에 평지의 제자 嗣宗이 쓴 「長蘆覺和尚頌古拈古集序」에 「爲萬世之龜嶺 明覺首唱於其前(중략) 長蘆和尚 拈古德機緣二百則 頌以宣其義 拈以振其綱 揚淮壖兩席之光 繼雪竇百年之踵」(『평지록』(上), p.81)라는 구절에서 설두의 영향력이 잘 드러난다.

18) 樽林皓堂, 「雪竇頌古と宏智頌古」, 『日本佛教學會年報』 22(도쿄: 日本佛教學會, 1957), pp.72~74에서는 두 송고집의 공통 고척이 30칙이며, 『설두송고』의 南泉斬猫의 본칙이 2칙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시에 있었던 입제중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식을 불식하고, 불법의 근본이 좌선에 있는 것을 쫓고자 노력하였다.¹⁹⁾ 쩡지의 경우 유명한 고칙의 취급 방법이 전혀 다르며, 쩡지의 송고는 그 중심 과제가 좌선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쩡지가 공안 비평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학인의 집화에 기본적으로 활용하였던 양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주지하듯이 고칙을 모아 연속해서 같은 형태의 송을 붙이는 시도는 분양선소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제시된 것은 주지하듯이 『설두송고』였다. 이러한 흐름은 입제중에도 이어져 白雲守端(1025~1072)이 110칙의 송고를 남겼다.

이와 같이 운문중, 입제중에서 송고가 유행하게 되면서 조동중에서도 이러한 공안 비평이 나타났다. 투자의청의 『投子頌古』, 단하자순의 『丹霞頌古』 등은 북송의 조동종을 대표하는 송고백칙이다. 현재 타이완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元版 『四家錄』²⁰⁾은 설두, 쩡지, 투자, 단하 등 4가의 송고를 모은 것이며, 그 가운데 쩡지가 쓴 『단하송고』의 서문이 주목된다.²¹⁾ 곧 쩡지가 자순의 범맥을 계승하였던 만큼 『단하송고』를 간행하고 그것을 직접 이용하였던 것이다. 다만, 『단하송고』의 경우 100칙 모두가 청원계 조사에 관한 것이지만, 『쩡지송고』의 고칙은 五家を 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단하송고』는 56, 59, 65, 78, 83, 84, 95, 98, 100칙을 제외하고 『염송집』에 대부분 수록되었다. 『투자송고』의 경우도 인용 빈도가 비슷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염송집』에는 투자, 단하, 쩡지로 이어지는 북송말, 남송초의 조동종을 대표하는 송고가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수선사에서 『염송집』을 편찬할 때에 조동종의 대표적인 공안 비평을 그대로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염송집』은 조동종의 대표적인 공안 비평을 집성하는 데에 그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적으로 『염송집』에 4家 평창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서 잘 드러난다. 4가 평창록이란 설두중현, 쩡지정각, 투자의청, 단하자순 등의 송고 100

19) 石井修道, 『宏智錄の歴史的 성격(上) -宏智頌古拈古を中心として-』, 『宗學研究』 14(도쿄, 駒澤大學, 1972) 참조.

20) 송대의 선종 각파는 경쟁적으로 자파의 원류를 이루는 조사 4명의 어록을 모아, 그것을 ‘四家錄’이라고 부르며 중시하였다. 이는 동일 분야에서 4인의 대가를 세우는 중국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입제중에서는 북송말에 『馬祖四家錄』(1085序)이, 남송에 이르러 『黃龍四家錄』(1141序), 『慈明四家錄』(1153序) 등이 편찬되었다. 조동중에서는 이보다 늦지만, 설두, 쩡지, 투자, 단하 등의 송고에 대한 평창록을 총서 형태의 四家評唱錄으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21) 椎名宏雄, 『元版『四家錄』とその資料』, 『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 10(도쿄: 駒澤大學 佛教學部, 1979)

칙에 대해 원오극근, 萬松行秀(1166~1246), 林泉從倫 등이 각기 평창 등을 붙여 만든 제창록인 『碧巖錄』, 『從容錄』, 『空谷集』, 『虛堂集』 등을 이르는 것이다.²²⁾ 이 가운데 『공곡집』과 『허당집』은 편찬 시기가 다르므로 수선사에서 입수할 수 없었던 문헌이다.²³⁾ 하지만, 『벽암록』과 『중용록』은 편찬 시기나 내용으로 보아 수선사에서 주목할 만한 문헌이었다. 먼저 『벽암록』은 원오가 『설두송고』에 대해 강의한 것을 제자들이 모아 편집하여 1125년에 간행하였던 것이다.²⁴⁾ 『중용록』은 평지의 송고 100칙에 대해 만송행수가 시중, 착어, 평창을 붙인 것으로 1224년에 간행되었다.²⁵⁾ 따라서 『벽암록』과 『중용록』은 1246년에 『염송집』이 증보, 편찬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문헌으로 보인다.

먼저, 위의 두 평창록 가운데 특히 『벽암록』이 『염송집』에 인용되지 않는 문제를 간단하게 검토해보기로 한다. 설두의 공안 비평을 대표하는 『설두송고』는 원오극근의 『벽암록』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지만, 원오에 의해 설두의 문자선이 갖는 한계가 비판되기도 하였다. 곧 『벽암록』에는 이미 과거의 공안에의 해석, 논평의 범위를 넘어서는 강렬한 실천에의 지향을 볼 수 있다. 원오는 착어와 평창을 통해 신랄한 비평을 더하였고, 그것은 공안 비평이라는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無事禪에 빠진 송대 선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²⁶⁾

또한 그것은 결국 무사선에 반대하면서 학인에게 철저하게 大悟할 것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다만 원오는 대오의 체험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벽암록』에서 하나의 명확한 초점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각적인 하나의 방법에

22) 만송행수가 평지의 엮고 100칙에 대해 평창을 붙인 『請益錄』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가 평창록에는 임제종의 『벽암록』이 포함되었다. 그것은 『벽암록』이 『설두송고』를 기반으로 하면서 북송 선문에서 제시된 공안 비평의 정수를 담은 문헌이었기 때문에 조동종에서도 당연히 수용하고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달리 말한다면, 공안 비평이 종파와 관계 없이 송대 선종계에서 널리 성행하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다만, 4가 평창록은 송고의 배열이 평지, 설두, 투자, 단하의 순으로 되어 있다. 송고의 성립 순으로 본다면 가장 늦게 이루어진 『평지송고』가 먼저 배치된 것은 조동종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23) 임천종륜이 投子義青의 송고에 대한 제창한 『空谷集』이 1285년에 간행되었고, 丹霞子淳의 송고에 대한 평창을 제시한 『虛堂集』이 1295년에 간행되었다.

24) 원오의 경우, 설두의 拈古百則에 대한 착어, 평창을 더한 『佛果園悟擊節錄』도 있다.

25) 椎名宏雄, 『從容錄』諸本の系統, 『宗學研究』 39(도쿄: 駒澤大學, 1997) 참조.

2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土屋太祐, 「北宋期禪宗の無事禪批判と園悟克勤」, 『東洋文化』 83(도쿄: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2003); 「公案禪の成立に關する試論 -北宋臨濟宗の思想史-」, 『駒澤大學禪研究所年報』 18(도쿄: 駒澤大學 禪研究所, 2007).

집약되면 필연적으로 간화선에 귀결될 것이라는 요소가 원오의 평창에 싹트고 있었다. 따라서 『벽암록』은 북송의 문자선을 집대성하면서, 그것을 간화선으로 전환하는 단초를 연 문헌이었다. 다시 말해 『벽암록』은 문자선의 도달점이면서 동시에 간화선의 기점이기도 한 문헌이었다.²⁷⁾

그런데 『염송집』에 원오의 착어로 인용된 것은 대부분 염고와 송고였고²⁸⁾, 『벽암록』에서 제시된 원오의 평창이 인용되지 않았다.²⁹⁾ 이 글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여유가 없지만, 이러한 경향은 적어도 공안선의 이해와 관련하여 『염송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나아가 그 문헌적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다소 거칠게 내린 결론이지만, 적어도 13세기 수선사 단계에서 편찬된 『염송집』은 북송 이후의 문자선을 정리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이러한 『염송집』의 편찬 방침은 핑지로 대표되는 조동종 선승들의 착어를 수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곧, 『중용록』과 같은 평창록이 입수될 수 있는 시기에 그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염송집』이 중국 선문의 공안과 그 착어를 집성하고자 한 문헌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염송집』의 문헌적 성격은 『禪門三家拈頌集』(이하 『삼가염송집』으로 줄임)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삼가염송집』은 『염송집』이 증보, 재간될 무렵인 1246년에 송대 운문종, 임제종, 조동종을 대표하는 설두, 원오, 핑지의 착어만을 집성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염송집』을 증보하여 편찬하고 간행하면서 『삼가염송집』을 따로 간행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³¹⁾ 그것은 고려 선종계에서 공안 비평에 대한 이

27) 小川隆, 앞의 책(2011), 第二章 第五節 참조.

28) 『염송집』에 인용된 원오의 착어에 대한 분석은 다른 글에서 밝힐 예정이다.

29) 『벽암록』은 현재 고려 불교계에서 간행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조선 세조 11년(1465)에 간행된 활자본을 제외하고 조선시기에 그다지 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禪門寶藏錄』 卷中(『한불전』 6, p.477)에 『벽암록』이 인용된 것을 제외하고, 고려의 선적에 인용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벽암록』의 수용 문제는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30) 이러한 문제는 결국 수선사가 공안선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였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필자는 종래 연구에서 수선사 단계의 간화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염송집』이 편찬되던 단계의 수선사나 13세기 후반 선종계를 주도하였던 일연의 경우에도 여전히 문자선의 이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문자선의 폐해를 비판하는 원오나 대혜의 논의가 별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13세기 단계의 공안선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1) 『삼가염송집』에 대해서는 채상식, 『修禪社刊 『禪門拈頌三家集』의 사상적 경향』, 『부산직할

해가 확산되고 간화선이 서서히 수용되는 단계에서는 『염송집』이라는 방대한 공안과 착어를 집성한 문헌보다 『삼가염송집』과 같이 공안 비평의 대표적인 착어만을 집성한 문헌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無字’ 화두라는 대표적인 공안을 중시하는 간화선이 확산되면 될수록 문자선의 유행도 서서히 퇴조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한편, 쩡지의 사상적인 영향은 『염송집』 이외에도 보인다. 예를 들어 진각국사 혜심의 「狗子無佛性話揀病論」은 모두에 쩡지가 小參을 행할 때에 제시한 본칙과 송고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³²⁾ 더욱이 원문은 『염송집』 147칙에도 수록되어 있다.³³⁾ 한편, 『重編曹洞五位』 卷中에 天童四借頌, 逐位頌에 天童覺五位頌이 수록되어 있다.³⁴⁾ 또한 일연이 보충한 부분에도 쩡지의 上堂이 인용되어 있다.³⁵⁾ 종래 거의 주목되지 않았던 문제이지만, 대부분 공안 비평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와 같이 조동종의 공안 비평이 다양한 형태로 고려 선종계에서 수용되었던 것은 당시 송과 고려의 선종계에서 공안 비평으로 드러난 문자선이 광범위하게 유행하였던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시립박물관연보』 11, 1988(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에 재수록)이 있다. 채교수는 『삼가염송집』이 간행된 것을 수선사가 선사상을 단순히 수용하고 ‘自己化’하는 단계를 뛰어 넘어 이를 재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채교수의 연구는 당시 서지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수준에 비해 『삼가염송집』의 자료적 가치를 불교사적 관점에서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당시의 연구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내린 결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삼가염송집』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하지 않고, 수선사의 선에 대한 이해를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필자가 논의한 바와 같이 송대 공안선의 흐름이나 선적의 자료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결론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삼가염송집』에 대한 문헌적 성격에 대한 문제는 다른 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32) 『한국불교전서』(이하 『한불전』으로 줄임) 6권, p.69. 원문은 『쩡지록』 권1 180(p.68)에 수록된 것과 같으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염송집』에도 인용되어 있다.

33) 「狗子無佛性話揀病論」에는 쩡지의 착어 외에도 五祖法演, 眞淨克文의 송고도 『염송집』에 수록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34) 『한불전』 6권, pp.226~229, p.232. 이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35) 『한불전』 6권, p.240.

V. 맺음말

굉지정각은 송대 조동종을 대표하는 선승이며, 그의 선은 默照禪으로 불린다. 흔히 목조선은 대혜종고가 완성한 간화선과 대립적인 선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통념과는 달리 『굉지록』에는 수많은 고칙을 공안으로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착어가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다. 필자는 『굉지록』에 수록된 착어가 『염송집』의 저본으로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굉지의 착어는 『염송집』에 본칙 286칙에 두루 인용되었는데, 이러한 인용 빈도는 대혜종고와 쌍벽을 이루며 설두중현, 원오극근 등과 함께 최대의 인용 빈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곧 수선사에서 송대의 조동종을 대표하는 인물인 굉지의 착어를 최대한 수록하고자 한 편찬 방침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염송집』에서 굉지가 착어를 붙인 본칙이 많은 조사는 대개 청원계에 해당하고, 특히 조동종 계열의 조사가 중시되었다.

둘째, 굉지의 착어는 『굉지록』 6권 가운데 권1, 3, 4에 수록된 상당과 소참에서 많이 인용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권2에 수록된 『굉지송고』와 『굉지염고』가 대부분 수록되었다. 『굉지송고』는 기본적으로 『雪竇頌古』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지만, 설두와 다른 선의 경지를 드러내고자 한 문헌이었다.

따라서 『염송집』은 조동종을 대표하는 공안 비평으로서 굉지의 착어를 최대한 수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면은 『投子頌古』와 『丹霞頌古』가 『염송집』에 대부분 수록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곧 『염송집』에는 투자, 단하, 굉지로 이어지는 북송말, 남송초의 조동종을 대표하는 송고가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셋째, 『염송집』은 조동종의 대표적인 공안 비평을 집성하는 데에 그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적으로 『염송집』에 4家 평창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서 잘 드러난다. 가령 『벽암록』을 통해 원오는 착어와 평창을 통해 신랄한 비평을 하였고, 無事禪에 빠진 송대 선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곧 『벽암록』은 북송의 문자선을 집대성하면서, 그것을 간화선으로 전환하는 단초를 연 문헌이었다.

그런데 『염송집』에는 『벽암록』에서 제시된 원오의 평창이 인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염송집』이 북송 이후의 문자선을 정리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문헌이라는 성격과 관련된다. 따라서 굉지로 대표되는 조동종 선승들의 착어를 수록하면서도 『중용록』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염송집』의 문헌적 성격은 『염송집』이 증보, 재간될 무렵인 1246년에 송대 운문종, 임제종, 조동종을 대표하는 설두, 원오, 평지의 착어만을 집성한 『삼가염송집』이 간행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나아가 이러한 공안집의 편찬이 결국 문자선의 집성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종래 수선사 단계의 간화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문제는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염송집』의 문헌적인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자료 >

『禪門拈頌集』(『고려대장경』 46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石井修道 編, 『宏智錄』(上), 名著普及會, 1984

『祖庭事苑』(『新撰大日本續藏經』 64권, 『卍續藏經』 113책)

『한국불교전서』 6권

< 논저류 >

宇井伯壽, 『禪宗史研究』(도쿄 : 岩波書店, 1939).

宇井伯壽, 『第三禪宗史研究』(도쿄 : 岩波書店, 1943).

樽林皓堂, 「雪竇頌古と宏智頌古」, 『日本佛教學會年報』 22(교토 : 龍谷大學 日本佛教學會, 1957).

石井修道, 「芙蓉道楷と丹霞子淳」, 『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 3(도쿄 : 駒澤大學佛教學部, 1972).

石井修道, 「宏智廣錄考」,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30(도쿄 : 駒澤大學佛教學部, 1972).

永井政之, 「祖庭事苑의 基礎的研究」, 『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 4(도쿄 : 駒澤大學佛教學部, 1973).

永井政之, 「雪竇의 語錄의 成立에 關する 一考察(三)」, 『駒澤大學大學院佛教學研究會年報』 8(도쿄 : 駒澤大學 大學院 佛教學研究會, 1974).

石井修道, 「丹霞子淳의 宗風」, 『宗教研究』 50-3(도쿄 : 日本宗教學會, 1976).

石井修道, 「宋代曹洞宗禪籍考 一投子義青의 二種의 語錄-」,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35(도쿄 : 駒澤大學佛教學部, 1977).

柳田聖山, 「雪竇頌古의 世界에 關하여」, 『禪文化研究所紀要』 10(교토 : 花園大學 禪文化研究所, 1978).

石井修道, 『宋版『宏智錄』 六冊에 關하여』, 『宏智錄』 上(도쿄 : 名著普及會, 1984).

- 椎名宏雄, 『宋元版禪籍の研究』(도쿄 : 大東出版社, 1993).
- 椎名宏雄, 「『從容錄』諸本の系統」, 『宗學研究』39(도쿄 : 駒澤大學 宗學研究所, 1997).
- 推名宏雄, 「『禪門拈頌集』の資料價值」, 『印度學佛教學研究』第51卷 第1號(도쿄 : 印度學佛教學會, 2002).
- 石井修道, 「南宋禪をどうとらえるか」, 『宋代禪宗の社會的影響』(鈴木哲雄編, 山喜房佛書林, 2002).
- 石井修道, 「宋代禪宗史の特色」, 『東洋文化』83(도쿄 :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2003).
- 土屋太祐, 「公案禪の成立に關する試論 -北宋臨濟宗の思想史-」, 『駒澤大學禪研究所年報』18(도쿄 : 駒澤大學 禪研究所, 2007).
- 조명제, 「一然의 선사상과 宋의 禪籍」, 『보조사상』33(서울 : 보조사상연구원, 2010. 02).
- 小川隆, 『續・語録のことは『碧巖錄』と宋代の禪』(교토 : (財)禪文化研究所, 2010).
-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宗門統要集』」, 『보조사상』34(서울 : 보조사상연구원, 2010. 08).
- 小川隆, 『語録の思想史』(도쿄 : 岩波書店, 2011).
-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禪宗頌古聯珠集』」, 『불교학보』62(서울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2. 08).
- 조명제,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雪竇 7部集」, 『한국사상사학』42(서울 : 한국사상사학회, 2012. 12).

<Abstract>

Compilation of Seonmunyeomsongjip(禪門拈頌集) by Suseonsa(修禪社) and Record of Hongzhi(宏智錄)

Cho, Myung-Je

『Seonmunyeomsongjip(禪門拈頌集)』 is a Buddhist scripture compiled by Suseonsa and shows the originality of Korean Zen Buddhism. It also is a basic text that tells us how Suseonsa understood the Zen Buddhism of the Sung Dynasty and how it accepted the Zen of Discourse.

Hongzhi Xhengue(宏智正覺) is a famous Buddhist monk of Soto sect in Song Dynasty. Most of his zen are considered as zen meditation without given topic. It is compared to zen meditation with given topic. Unlike commonly known to people, many old regulations are used as Gongan in Record of Hongzhi, and a big amount of his comments are recorded in this book. In this study, how comments of Hongzhi was quoted in “Seonmunyeomsongjip” and how his ideas were influential.

First, comments of Hongzhi was majorly extracted from volume 1~4 of total 6 volumes of Record of Hongzhi. The comments include Niangu and Songgu from volume 2 and lessons and small lectures from volume 1, 3 and 4.

Second, “Hongzhi Niangu” and “Hongzhi Songgu” are mostly recorded as they are in “Seonmunyeomsongjip”. Songgu of Hongzhi was influenced by Songgu of Xuedou, but Hongzhi aimed to reach another stage of zen. Main texts of “Xuedou Songgu” mainly include messages of Unmoon sect, but “Hoingzhi Songgu” include old stories of the messages of Soto sect.

Third, “Seonmunyeomsongjip” include most Songgu of famous monks representing Soto sect in the late Kaifeng Era and Southern Song Dynasty like Touzi, Danxia and Hongzhi. It has much to do with Suseonsa’s intention of introducing famous

Gongan review of Soto sect.

•Key Words

『Seonmunyeomsongjip(禪門拈頌集)』, Hongzhi Xhengue(宏智正覺), Record of Hongzhi(宏智錄), Suseonsa(修禪社), Soto sect(曹洞宗)

논문접수일: 2012년 11월 22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7일.